

어떻게 단일 후보를 마련할 것인가

권영길 의원이 말했듯이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의 대표이자 국회에 진출한 유일한 진보 세력으로 ... 진보대연합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먼저 개방적인 자세로 진보진영 연석회나 원탁회의를 제안해야 한다.

여기서 권한을 위임받은 각 단체의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후보 선정의 기준과 방법,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각 단체들이 자체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소속 단체 안에서 민주적 위임을 받은 대표자들이 모여 선거연합(과 단일 후보 선정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물론 각 단체들은 자체 후보 선출 시기를 미리 확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서 대표자들은 자기 단체의 입장을 우선 대변하기보다는 우리 선거연합의 후보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한다.

1998년 선거에서 ‘애국의 기풍’이라는 선거연합을 통해 집권한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물론 차베스라는 강력한 후보가 있어서 비교적 쉬웠지만 사회주의운동당(MAS), 급진행동당(LCR), 공산당 등은 공동의 대의를 앞세워 단일 후보 선정을 합의했고 결국 승리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 단체들이 먼저 각각의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대선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복수의 후보가 존재해야만 진보진



1998년 선거연합으로 집권에 성공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영 단일 후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노동당 말고 다른 단체의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일 후보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다른 단체들의 대선 후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민주노동당이 자체 후보 마련에 더 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선거연합 결성 전에 먼저 당원직선제로 당 후보를 선출한(1단계) 뒤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2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발상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각 단체가 자체의 후보 선출에 우선 열중하다 보면 선거연합과 단일 후보 마련 추진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유럽헌법 반대 투쟁과 최초고용계약법(CPE) 철후 투쟁에서 단결했던 프랑스 진보진영이 대선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교훈을 돌아봐야 한

다. 공산당과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이 각각 자체 후보를 먼저 결정해 버리자 단일화가 힘들어진 게 사실이다. 결국 프랑스 진보진영은 4명의 후보로 분열해서 대선을 치르고 있다.

각 단체가 자체의 후보 선출에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며 우선 열중하다 보면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추진을 소홀히 하게 되고 미뤄지기 십상이다.

나아가 단일 선거연합에서 단일 후보 선정에 실패해 각 단체들이 따로 후보를 내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선 막판까지 단일 후보 마련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급진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방적인 자세로 단결하고 대중에게 다가갈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 후보 마련

진취적으로 정치적 기회에 도전하자

노무현·열우당의 개혁 배신 때문에 이들을 지지했던 광범한 개혁 성향 대중이 이탈했다. 이 때문에 여권은 분열과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심지어 다가올 보궐 선거에서 후보조차 내기 힘들다는 소리도 있다.

대중이 노무현·열우당에게 보내는 환멸은 매우 뿌리 깊은 것이다.

과거 노무현·열우당을 지지했던 이들의 일부는 한나라당 이명박 지지자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명박 지지자가 곧 한나라당 지지자는 아니다. 더구나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사람의 60퍼센트가 더 나은 후보가 있다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좀더 개혁적인 대중의 일부는 민주노동당 지지로 옮겨왔을 것이다. 최근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열우당 이탈 개혁 성향 대중의 상당수는 여전히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죽어도 싫은데 마땅한 대안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심정일 것이다. 이들에게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을 지지할 선거대안이 되기에는 여전히 작아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배철호·한길리서치



연구실장은 최근 여론의 흐름을 “확실한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불확실성과 공백을 파고들기 위해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선거연합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미 열우당 와해가 남긴 공백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의 경쟁이 본격화했다. 천정배·김근래는 잃어버린 진

보·개혁 대중의 마음을 얻고, 미래구상 등 시민단체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한미FTA 협상 중단 단식까지 했다. 민주노동당이 이 상황에서 기존의 틀만 고집한다면 ‘개혁 사기꾼’에게 기회를 내 줄 수 있다.

» 2면으로 이어짐

» 1 면에서 이어짐



천정배와 김근태 - 이런 불순물들이 끼어들면 선거연합의 취지는 왜곡될 것이다



선거 연합과 단일 후보 마련의 기준



정치적 양극화에서 비롯한 기회를 잘 이용하려면 광범한 세력이 연합해야 한다. 이미 노무현·열우당·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동맹에 맞서는 운동의 연합이 있다.

진보적 NGO, 민주노동당, 급진좌파, 노동·민중단체들이 함께한 '한미FTA 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파병반대국민행동' 등이 그것이다. 이런 연합과 공동 행동의 경험은 선거연합으로 발전할 기반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선거연합은 노무현·열우당의 배신에 분노해 대안을 찾고 있는 기층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려면 이 같은 대중이 지지하는 진보적 NGO들과 임종인 의원 같은 개인들을 선거연합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연합의 대상은

사회당, 노동자의 힘과 같은 비(非)민주노동당 좌파 정치세력들, 초록정치연대와 일부 시민단체, 미래구상과 그 유사조직"이라는 정종권 위원장의 주장은 타당하다.

반면, "기존 정치 세력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노회찬 의원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 "자유주의 개혁 세력 중에서도 현재 신자유주의에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불문하고 모두 망라해야" 한다는 정성희 전 민주노동당 기관위원장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지금중 미래구상 사무총장도 "자유주의 개혁 세력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반한나라당 전선이나 '비판적 지지'라는 오해를 자초하면서 진보진영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한나라

당·열우당과 그 변종 등 기존 정치 세력들은 모두 이라크 파병, 노동법 개악, 한미FTA 등을 추진해 온 장본인들이다.

김근태·천정배 등도 마찬가지다. 열우당에서 "주인 노릇"하던 자들이 뒤늦게 한미FTA의 문제점을 발견한 척하는 것은 역겹고 미덥지도 않다. 이런 불순물들이 끼어들면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취지는 왜곡될 것이고,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대중의 기꺼운 지지를 끌어낼 수 없다.

따라서 진보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진보의 기준은 첫째, 신자유주의 반대여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천정배와, 한미FTA가 "긍정적"이라며 "[다만] 체결은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김근태는 걸러져야 한다.

더구나 김근태와 천정배는

열우당 의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정규직·정리해고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을 지지해 왔다. 열우당 386 개혁파들도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 핵심 정책을 지지해 놓고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둘째, 전쟁 반대와 한반도 평화여야 한다. 한나라당 일부도 말하는 '햇볕정책 지지' 정도는 안 된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반대해야 하고, 무엇보다 한국군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 파병에 반대해야 한다. 노회찬 의원도 '이라크 파병 반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2004년 이라크 파병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근태·천정배는 포함될 수 없다. "개인적으론 반대"라면서도 꼭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며 이라크 파

병안 통과를 간접 지원하더니 '유엔평화유지군 이라크 레바논 파병을 찬성한 열우당 개혁파'들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곳곳을 끄적거린 전쟁터로 만든 부시의 전쟁을 지지하면서 '반전 평화'를 말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비핵 평화' 구호처럼 역겨운 위선이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기성 정치인은 임종인 의원뿐이다. 따라서 셋째, 한나라당과 열우당과 그 변종 등 주류 정치 세력의 일부에서는 안 된다. 이들은 기득권 세력을 기반으로 삼고 전쟁·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온 당사자들이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진보적 NGO와 민주노동당, 노동·민중단체와 일부 개인 등 진정한 진보진영이 광범하게 연합해야 한다.